

2014년 5월 12일의 일기

전날 독서모임(핑크북)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피곤했지만 무사히 잘 일어나서 대충 씻고 옷 입고 애인님네 집으로 향했다. 이사한 후 처음 가보는 애인님 집인데 홍제는 너무 멀다. 서둘러 출발했더니 약속시간보다 15분가량 일찍 도착했다. 일찍 도착할 것 같아 미리 애인님께 말했더니 좀 더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홍제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애인님 곁에는 귀여운, 그런데 그새 좀 더 큰 듯한, 별이도 있었다. 애인님이 별이에게 휴대물통으로 물을 줬지만 별이는 물 한 모금만 마시곤 마시지 않았다. 기쁨씨도 좀 더 일찍 도착해서 우리는 애인님네 집으로 향했다!

애인님네 집은 홍제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크게 멀지는 않았다. 길 눈이 좋은 난 애인님네 집 가는 길을 외웠다! 애인님 오빠몬이 집에 있어서 조용히 애인님네 집에 입성! 애인님 방은 넓고 쾌적하고 좋았다. 대신 어머님 방은 냉장고와 함께라 정말 비좁았다.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은 차지했다니 기쁘다! 점심시간이라 애인님이 부랴부랴 점심을 차려줬다. 된장국도 끓여주고 제육볶음도 해주고 그 외 밑반찬도 꺼내줘서 배부르게 맛나게 집 밥을 흡입했다. 나와 애인님은 후르륵 밥을 빨리 먹어치우고 기쁨씨는 천천히 먹었다. 별이는 책상 의자에 간혀서 밥 먹는 우리는 불쌍한 표정을 하고 쳐다봤다. 하지만 밥 먹을 땐 어쩔 수 없음.

밥을 흡입하고 식후땀 하겠다는 애인님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애인님과 기쁨씨는 담배를 폈다. 담배 안 피면 좋겠는데 좀 속상. 별이는 빗물이 받아진 물을 자꾸 마셨다. 산성물이 맛 있나보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는 체육대회 회의에 들어갔다. 토요일에 미리 애인님과 생각해둔 프로그램에 좀 더 추가를 해서 프로그램부터 짰다. 여러 프로그램을 짰 후에는 열심히 준비물도 생각하고, 경품도 생각했다. 사실 회의는 대충하고 놀 줄 알았는데 회의에만 집중했다. 회의만 했음에도 6시가 넘었고, 원래 저녁에 애인님과 환경영화제 영화를 보려 했으나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는 애인님 말에 좀 고민을 하다 내일 애인님 호텔 면접 보고 난 후에 만나서 영화 보기로 했다. 기쁨씨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6시 반쯤 나갔고 기쁨씨 배웅 조금만 하고 다시 애인님네 집으로 돌아왔다. 단 둘이 남겨진 방에서 뽀뽀를 쪽쪽쪽 하면서 있다가 어머님 오시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7시 쯤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난 홍제역으로 갔다. 홍제역에 뚜레쥬르가 있어서 빵을 사서 지하철을 타고 승승 갔다. 책을 열심히 읽고 미금역에서 내려서 도서관에 들려서 책 반납하고 빌려서 집으로 왔다. 집으로 오는 길에 열심히 빵을 흡입했다. 집에 도착해서 빵과 우유 흡입하고 우걸을 보며 덩가덩가 놀다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했기에 일찍 누웠다. 게임을 하고 잠을 잤다. 애인님네 집에 가서 신난 하루였다!